

고양 YMCA x KB 국민은행

22기 라온아띠 야미야미

12월 활동보고

숙명여자대학교 야미야미

목차

- 01 12월 활동내용 요약
 - 로컬푸드 교육 2, 3, 4회차 진행
 - 베트남 교류 2, 3회차 진행
- 02 활동 진행과정
 - 12월 활동 회의 및 진행 과정
- 03 활동 소감
 - 팀원별 활동 소감

11월 활동 내용 요약

1. 로컬푸드 교육 2, 3, 4회차 진행
2. 베트남 교류 2, 3회차 진행

12.2,
23,30

[로컬푸드 교육] 고양시 지역아동센터에서 2,3, 4회차 교육 진행
1. 2회차 교육(12.2)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운 로컬푸드 교육 내용에 대해 복습하고, 월남쌈 만들기를 진행.
2. 3회차 교육(12.23) 시간에는 생산자와 소비자 관점에서의 로컬푸드의 장점과 사회적으로 어떤 이로운 점이 있는지 알아보고 간단한 게임을 통해 수업 내용을 다시금 확인하고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을 복돋우는 시간을 가짐.
3. 4회차 교육(12.30) 시간에는 지금까지의 교육 내용을 복습하는 퀴즈를 진행하고 카나페 만들기를 진행함.

12.28

[중간점검] 고양YMCA 방문, 4회차 교육 준비
고양 YMCA를 방문하여 활동 진행방향에 대한 점검을 진행하고, 4회차 교육에 필요한 물품 구매, 교육 준비를 진행.

12.3,
30

[베트남 해외교류] 베트남과의 실시간 ZOOM 교류 2, 3회차
1. 베트남과의 교류가 비대면 실시간 ZOOM으로 진행됨.
2. 2회차 시간(12.3)에는 1회차에 배운 각국의 인사말을 상기하고, 캐치마 인드라는 게임을 진행하였음. 이후에는 소그룹으로 나뉘어 각국의 학교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3. 3회차 시간(12.30)에는 각자 준비해 온 각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그에 관련한 토론을 진행함. 각국의 새해 인사말에 대해 배움.

12월 활동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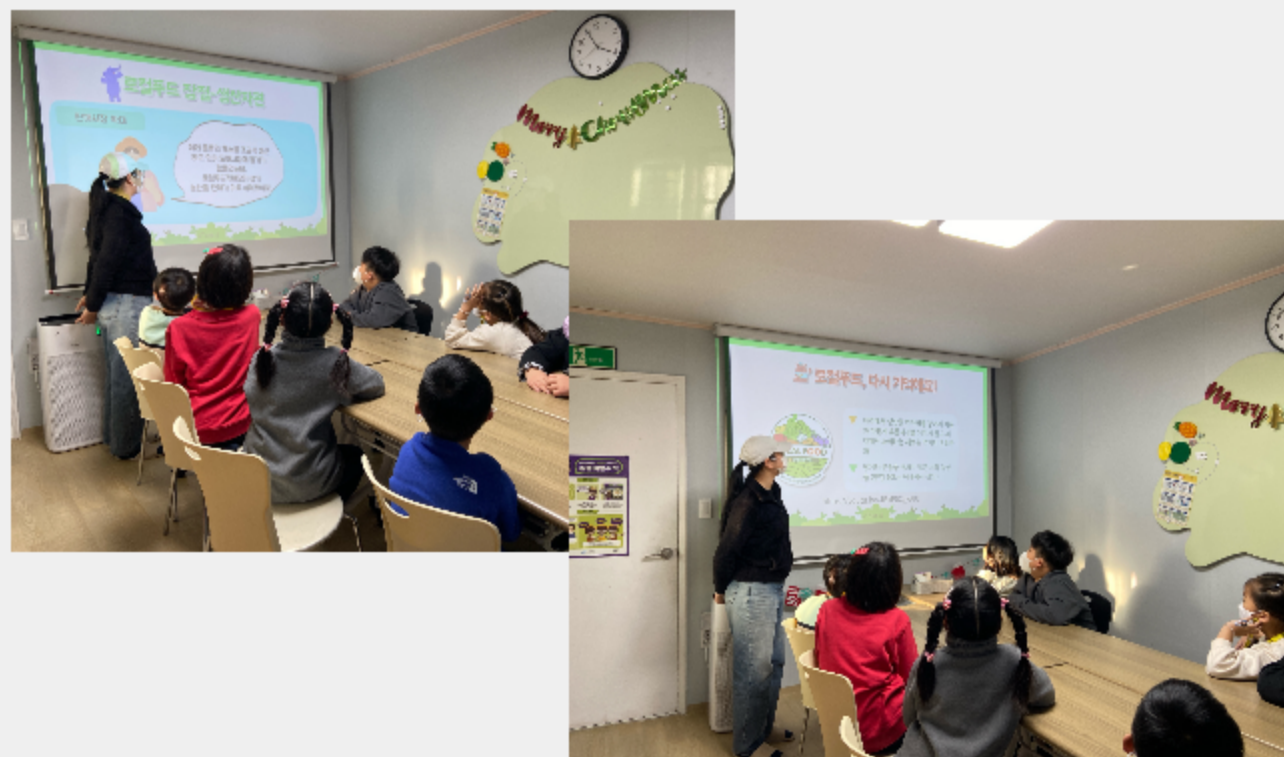
[로컬푸드 교육 2, 3, 4회차 진행]

12.2 2회차 교육



월남쌈 만들기 진행,
로컬푸드 표기내용과 지속가능성 교육

12.23 3회차 교육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점에서
바라본 로컬푸드의 장점 교육, 퀴즈

12.30 4회차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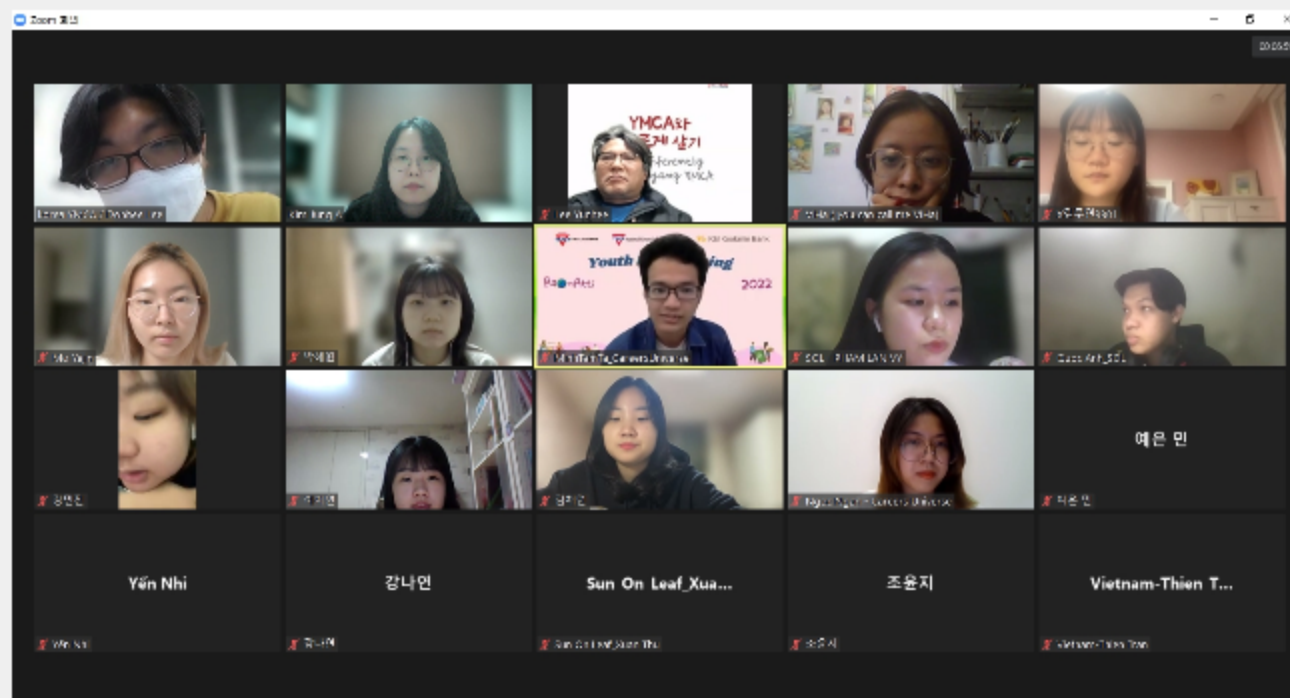
카나페 만들기 진행,
지금까지 교육 내용 복습 퀴즈

12월 활동내용

[베트남 교류 2, 3회차 진행]

12월 3일,
12월 30일
오후 9시

비대면 실시간 ZOOM을 통해 베트남 단원들과 만나 파트너국가 교류 활동을 진행함. 캐치마인드라는 게임을 통해 단원들 간 교류 활동을 진행하였고, 각국의 학교생활은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눔.
각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발표하고, 이를 주제로 토론을 진행함.



2. 12월 활동 진행과정
[대면교육 진행]



2. 12월 활동 진행과정

[대면교육 준비]

12월 28일
마지막 교육
준비



4회차 교육에 필요한 카나페 만
들기 재료 준비 및 사전에 제작
한 교육용 리플렛과 스티커 포장



활동소감

팀원별 활동소감

모예진

이번달은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마무리하는 달이었다. 2, 3회차 교육을 준비하고 4회차 교육에 직접 참여하였다. 지난 교육들에서 한 내용을 퀴즈 형식으로 물어보았는데, 학생들이 지난 교육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어서 보람이 있었다. 또한, 대답도 적극적으로 하고 문제 정답도 열심히 맞추며 활기차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었다. 마지막 실습도 진행했는데, 로컬푸드로 직접 카나페를 만들고, 학생들이 자신만의 레시피로 음식을 만드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학생들에게 로컬푸드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알릴 수 있게 도움을 주신 KB 국민은행과 고양 YMCA에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다.

김도은

이번 12월에는 직접 아동복지회관에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요리 실습을 진행했다. 처음 만나는 아이들과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요리를 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 같은 게 있었지만 다행히도 아이들이 집중해서 교육에 임하고 즐겁게 따라주어서 재미있게 실습할 수 있었다. 조금씩이지만 로컬푸드의 이점에 대해 알아가는 게 보여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다.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꿈나무들에게 의미있는 가치를 전달할 수 있어 영광이었다.

활동소감

팀원별 활동소감

강나연

12월은 교육활동과 실습활동 총 3회를 진행했다. 회차가 거듭할수록 교육장소와도 교육대상아이들과도 가까워지며 실습을 진행할 수 있었다. 로컬푸드와 지속가능성이라는 아이들에게는 다소 생소할 수 있는 개념이 게임과 실습등을 통해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다. 앞으로 남은 2회의 교육은 그동안의 교육의 피드백과정을 거쳐 더욱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박혜원

한울타리 지역 아동센터에 방문하여 남은 2,3,4회차 교육을 진행하였다. 생각보다 아이들이 지난 회차의 교육내용도 잘 기억하고 있고, 준비해 간 교육내용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며 재미있고 뿌듯했다. 다만,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보니 처음에 기획했던 것 보다는 교육 내용이 조금 더 간소화되어 아쉽지만, 아이들에게 로컬푸드와 지속가능성이라는 개념을 인지시켰다는 것이 뿌듯하다.

조윤지

퀴즈시간이나 로컬푸드를 이용해 직접 요리를 해 먹는 시간에는 기대한 것 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임해주어 고맙고 재미있었다. 베트남과의 교류시간에는 각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베트남단원들도 한국의 우리 토래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져 반가운 마음이 들었다.